

# 영혼은 가슴에 불지를 그 무엇을 원한다

차현숙 | 소설가

‘책’이라... 새벽에 우유 투입구로 반쯤 밀어 넣어진 신문을 꺼낼 때 가슴이 뛰다 못해 울렁거린다.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신문에 실린 그 주의 새책면을 찾기 위해 사회면, 정치면을 건너뛴다.

그리고 한 손엔 연필을 쥐고 거실 바닥엔 수첩을 펴놓고 새책을 소개하는 짧은 서평을 빠르게 읽으며 아주 익숙하게, 소개된 책들 가운데 몇권의 제목과 작가이름, 출판사 이름을 수첩에 적어 내려간다. 그 순간 나는 무척 흥분상태에 빠지는데 그건 커다란 신문에 단 두세 줄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새로운 책들이 날 읽어 줘, 아니 너의 세계로 가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어, 라는 속삭임 때문이다.

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는 일주일에 한번은 꼭 서점에 간다. 동네 서점이든 시내의 대형서점이든 간에. 당장 읽지 않을 책이라도 산다. 그건 나의 조바심 때문이다. 지금 사지 않으면 그 책은 마치 지구상에 사라져버릴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그 책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다.

책을 담은 서점의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다시 흥분상태에 빠진

다. 책상 위에 사온 책들을 쌓아올린 후 커피를 한 잔 타서 조금씩 마시며 아주 느리게 맨 위에 올려진 책부터 일단 대충 보며 책꽂이에 꽂는다. 어떤 책은 인문학이 꽂혀 있는 곳에, 어떤 책은 시집이 있는 곳에. 소설책의 경우엔 책상에 그대로 둔다. 그건 가장 빨리 읽어야 할 책이므로. 이 모든 일이 일차 끝나고 나면 나는 식은 커피를 마시며 책장을, 책장에 꽂힌 내 책들을 하나하나 본다. 그런 순간이면 나는 이 모든 책의 저자인 듯한 착각마저 든다.

물론 어떤 책들은 몇 달 후, 아니 몇 년 후에 읽을 수도 있다. 또 어떤 책들은 읽고 또 읽어서 페이지마다 내가 친 밀줄로 가득하기도 하다. 책에 대한 내 집착은 강렬하고 지독하다.

가끔 출판사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을 듣는다. “책의 위기” “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” “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과 비디오에서 책에서 얻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값싸게, 어설픈게 아는 것만으로 충분히 책을 외면하고자 하는 자기 안의 논리를 형성해 가고 있다” “책은 책을 쓴 지은이나 앞으로 그 방면으로 자기 인생의 항로를 잡은 사람들만이 읽은 소수의 취미, 혹은 수집의 의미만으로 존재할 것이다” 등 책의 소멸에 관한 말들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.

책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얻고, 순간의 감상이 마음을 스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. ‘책은 자연이다’ 고 나는 말하고 싶다.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뇌는 정보만을 얻고, 우리의 정서는 일회적인가? 아니다.

우리가 서점에 가는 순간 우리의 뇌는 정보 이상의 것을 발견하고자 흥분하고, 우리의 영혼은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 무엇을 기대한다. 그래서 서점에 도착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간다. 내 영혼을 뒤흔들 책을 찾기 위해 눈의 동공은 커지고, 손은 흥분으로 떨기까지 한다. 마치 배가 고플 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저절로 나는 것처럼... ■

THE KOREAN PUBLISHING JOURNAL, biweekly

통권 제322호 | 2002년 4월 20일 발행

발행인 김낙준

편집이사 임홍조

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

편집장 박천홍

기자 강성민 김장근

차정신 박옥순

사진 김경록

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| 안지미

박기아

업무부장 윤동호

업무·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

등록 1987년 6월 9일 - 다 435

발행처 (재)한국출판공고

732-1434 · 5

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

이일수

출판저널 110 - 190

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- 2

출판문화회관 2층

전화 732 - 1431 · 2 | 편집

732 - 1433 | 업무·정기구독문의

FAX 722 - 1174

E-mail book732@chollian.net

하이텔 chulpan

천리안 book732

《출판저널》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.

### 정기구독 안내

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《출판저널》은

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

빠르고 편합니다.

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,000원을

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

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. 본사의 지로용지가

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(농협·수협·축협

포함)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

금액, 주소,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

국민은행 계좌번호 023-01-0219-936

(예금주·출판저널)을 이용하십시오.

공급 | 한국출판협동조합

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-6

716-5616~9, 716-5621~3